

제 30 시의회 선거구

Elizabeth S. Crowley (D, WF)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크라우리입니다. 거의 5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제 30 선거구를 대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며 지역 공립학교에 다니는 제 두 아들에게도 이곳은 집이자 고향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 중산층 가정들이 직면하고 있는 독특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 30 선거구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시의원으로서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위해 싸운 성공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안전하게 하고 현장응급처치자를 지원하는 시 정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좋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을 위한 의료 서비스 옵션을 유지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정부가 우리 제반시설에 투자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저는 선출된 후 꾸준히 이와 같은 문제들에 집중해 왔습니다. 소방서를 폐지하려는 시장의 계획에 반대해 싸웠습니다. 모든 지역 공립학교가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받도록 자금을 할당했습니다. 또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서비스 개선안을 모색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계속해서 글렌데일, 메스페스, 미들빌리지, 리지우드, 우드헤이븐 그리고 우드사이드 가정들을 대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역들은 뉴욕시에서 가장 좋은 곳에 속하며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들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제 30 시의회 선거구
Craig N. Caruana (R, C)

안녕하세요. 저는 글렌데일, 우드헤이븐, 미들빌리지, 리지우드 그리고 매스페스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 시의원직에 출마한 크레이그 카루아나입니다. 저는 제 30 선거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미국 가톨릭 대학과 텍사스 A&M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해군 차관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 년 500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며 100,000 명의 직원이 소속된 조직의 관리를 도왔습니다. 이 복잡한 정치적 환경에서 저는 변명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크롤리 현 시의원의 리더십 부족에 불만을 품고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시의원은 우리 지역보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우선시하여 첫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미하원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경찰관을 더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커스 섬에 있는 교정국이 불법 체류하고 있는 범죄자 일부를 이민국으로 이송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은 추방되는 대신 감옥에서 복역기간을 마친 후에 다시 사회로 나와 계속 미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수 세대를 이어 퀸즈에 거주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저는 시의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는 의원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당선된다면 저는 뉴욕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높은 생활비를 낮추고, 검문 몸수색(Stop and Frisk)을 포함한 효과적인 반 범죄 전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저는 시청에서 우리 지역의 이익을 최우선순위로 삼을 것입니다.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 지역을 개선하고 시 정부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홍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